

## <좀 태워주지 그래?>

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이 되었고 화재 진압, 구조, 구급, 행정 등 다양한 소방관의 업무 중 화재진압대원으로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하였다.

밤, 낮 가리지 않고 뜨거운 불과 싸우는 일을 통해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게 된 나는 1여 년이 지난, 2015년의 어느 날 화재 진압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구급대원으로 인사 발령을 받았다.

주 처치를 하는 구급대원이 아닌 운전을 하는 보조구급대원이었지만, 예전 구급차 동승실습을 통해 나의 작은 행동 하나 하나에 한 사람과 한 가정의 행복이 직결 된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많은 부담이 되었었다. 하지만 생명을 위한 일을 한다는 자부심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기에, 분명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하루 출동 중 열에 넷 정도는 단순 주취이거나 가벼운 찰과상, 혹은 진료를 받기 위한 병원 이송 목적과 같은 비(非)응급출동이었는데 그런 출동을 나갈 때 마다 그들 대부분은 ‘병원 말고 집에 데려다 주세요.’, ‘우리 집에 들어서 물건 좀 챙겨잡시다.’ 등 구급차 운용의 목적을 벗어난 규정 외의 요구를 하곤 했었고, 그럴 때 마다 나는 평정을 유지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그런 무리한 요구 속에서도 회의감, 분노 등을 억누르고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고 명확한 판단을 하려 노력했다.

그렇게 다양한 유형의 출동을 겪으며 구급대원으로 성장해나갈 때쯤.

어느 날, 나를 부르는 익숙한 출동 벨이 스피커에서 터지 듯 나왔다.

“삐쭍! 삐쭍! 구급 출동. 구급 출동 위치는 000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고 함.”

출동 지령을 듣는 그 즉시 구급차를 타고 출동 길에 나섰다. 그렇게 도착한 신고지에는 60대로 보이는 아저씨 한 분이 배를 부여잡고 쓰러져 계셨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살려주세요. 배...옆구리 쪽이 너무 아파요...!”

거의 신음에 가까운 목소리를 내시는 아저씨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한 뒤 응급 조치와 함께 구급차로 모셔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을 했다.

응급실에서 진찰을 받은 아저씨는 요로 결석이 원인이었고, 진통제 처치를 받고 난 후에야 진정되었는지 표정이 서서히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출산의 고통과 맞먹는다는 그 고통을 참으며, 우리의 응급처치를 잘 따라주신 그분의 모습은 ‘아…모든 환자분들이 이렇다면 구급업무가 더 수월하고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감사한 마음을 남겼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아저씨가 근무지에 찾아오셨다.

“그때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 빨리 와줘서 얼마나 고맙던지, 우리 아들보다 훨씬 낫더구만!”

연신 고맙다며 환하게 웃으시는 아저씨를 보니 정말 뿌듯했다.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 걸요.” 라는 나의 대답에 아저씨는 불쑥 손을 짝 잡아주셨다.

“생명의 은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하나?”

“아저씨 건강하신 모습 보는 걸로 저희는 괜찮습니다!”

“허허 말 예쁘게 하는 것 좀 봐! 너무 고맙네.”

“진심입니다. 다시는 구급차 타는 일 없으셔야 합니다!”

“그래그래. 참, 우리 집이 바로 이 뒤에 자주 보자고!”

이 방문을 계기로 근무지의 뒤쪽에 사시던 아저씨와는 오다가다 인사하며 더욱 친한 사이가 되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는 이제 퇴근입니다 헤헤.”

“좋겠네. 나는 이제 일하러 나간다! 얼른 집에 가서 쉬어.”

아저씨와 간간히 나누는 가벼운 인사는 내가 구급대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근무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주었다.

그렇게 몇 달 후 어느 때와 같이 길거리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지령을 받고 출동을 하게 됐다. 현장에 도착해서 확인한 바, 단순주취였지만 혹시 모를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중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 멋진 소방관들!”

저 멀리서 매일 아침마다 인사하던 아저씨가 친구분들과 함께 걸어오셨고, 내

가 있는 쪽으로 오자마자 길에 쓰러진 주취자분을 챙기셨다.

“아이고 이 친구 여기 쓰러져 있었구만. 어디 갔는지 한참 찾아다녔는데. 걱정 말어. 우리랑 술 조금해서 취했는데 누가 신고했나며.”

아저씨는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며 친구분들께 우리를 소개하셨다.

“내가 맨날 예쁘다고 얘기했던, 그때 나 구해준 아들 같은 소방관들이 이 친구들이야! 아주 내 아들삼고 싶다니까!”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복귀하려는 우리를 아저씨가 붙잡으셨다.

“고생이 너무 많다. 배고프지? 이걸로 맛있는 거 사먹어.” 라며 주머니에 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넣어주셨고 나는 냉큼 빼서 다시 돌려드리고는

“성의는 감사하지만, 저희 이런 거 받을 수 없다는 것 잘 아시잖아요.” 라고 하며 빠르게 인사하고 자리를 떠나려는데 아저씨께서 다시 붙잡으셨다.

“그럼 돈만 받는 것이 미안하면 우리들 좀 우리 집 앞까지만 태워다줘. 바로 소방서 뒤 인거 알지? 우리 맨날 만나잖아!”

갑작스러운 황당한 요구에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하게 거절하며

“네?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자 아저씨는

“에이 우리 사이에 왜 그래~?” 라고 하셨고 뒤이어 친구분들께 구급차 뒤에 타라는 손동작을 하시며 내 몸을 막으셨다.

너무 순식간에 구급차에 타고 있는 일행을 보며 나는 당황스러웠지만, 아저씨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아저씨. 죄송합니다. 귀소 중에 출동이 걸릴 수도 있고, 긴급차는 특수한 목적상 환자 외 단순 이송은 금지되어있습니다. 아무리 친하셔도 이걸 규정위반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 말에 아저씨는 얼굴이 빨개지시며 “아니? 이 친구야! 내가 어디 저~ 먼 곳 데려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가는 목적지가 같으니 그냥 살짝 태워달라는 건데 왜 그렇게 뻑뻑하게 굴어? 우리가 모르는 사이도 아니잖어!”

지갑을 다시 꺼내며 만 원짜리 지폐를 더해 내미셨다. 술에 취하신 채 점점 감정이 격양되는 아저씨의 모습에 실망감, 회의감 ‘어려운 부탁이 아닌데 그냥 태워드릴까? 어차피 돌아가는 길이고…….’ 하는 타협 등 여러 감정들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규정을 어길 수 없는 나는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며 다시 말씀드렸다.

“아저씨! 아저씨가 많이 아끼시는 아들 같은 저희가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 돈을 받을 수도 없고 규정상 태워다 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나의 무거운 목소리와 표정을 본 아저씨와 일행은 순간 정적과 함께 구급차에서 내리셨고 아저씨도 더 이상 돈을 손에 쥐어주려 하지 않으셨다.

“됐다! 거참, 사람이 그렇게 뻗뻗해서 어찌려고 그래? 융통성이 없어!”

라는 말과 함께 잔뜩 화가 나신 채로 친구분들과 걸어가셨고 떠나는 구급차도 본체 만체하셨다.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근무지로 돌아온 나는 복잡한 감정에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다.

‘오는 길인데 괜찮겠지? 친하니까 괜찮겠지? 고맙다고 주는 돈인데 그냥 받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야……. 처음이 어렵지 습관이 되면, 돈 받는 일도 규정에 어긋나는 일도 서슴없이 하게 될 거야. 혹시 그러다 1분 1초가 중요한 환자들이 우리의 늦은 출동과 응급처치로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된다면, 그건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인 거잖아. 난 분명 잘 한 거야.’

다음 날 아침, 거짓말처럼 퇴근길에 아저씨와 마주쳤다. 지나가는 아저씨를 보고 급히 붙잡았다.

“아저씨 어디가세요? 저 지금 퇴근 중인데 가시는 곳까지 제 차로 태워드릴게요!”

일부러 크게 웃으며 아저씨 곁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아저씨는

“됐어, 이놈아! 요기 바로 앞에 갈 거야! 비켜! 나 바빠.” 라며 걸어가는 아저씨의 모습에 나는 무안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렇게 몇 초가 지났을까 아저씨는 나를 다시 돌아보며, 멧쩍은 표정으로 말하셨다.

“근데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 술이 너무 취해서 주책이었어. 이제 구급차는

됐고, 네 차로 빨리 태워 줘 인마.”

해맑게 웃으며 건네는 그 말에 밤새 날 괴롭히던 고민은 눈 녹듯이 사라졌다. 청렴은 욕심에 맞서는 것 그리고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했으며, 마지막까지 규정을 지킨 나의 청렴한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